

순천 '인재양성~일자리~정착' 청년 선순환 모델 구축

시, 2030년까지 1234억 투입...청년정책 패키지 지원 독창적 청년문화 브랜드 구축...'청년친화도시' 조성

순천시가 지역의 우수한 생태·문화 인프라를 활용해 청년의 성장을 이끌어갈 '순천형 청년친화도시 선도 기본계획'이 국무조정실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시는 지난해 국무조정실 주관 '청년친화도시'로 전국 시 단위 최초이자 호남권 유일 지자체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최종 승인에 따라 2030년까지 5년간 청년정책과 관련한 정부의 집중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을 확보하며 대한민국 청년정책의 표준 모델로 우뚝 서게 됐다.

현재 순천의 청년 인구는 전체 인구의

32%로 전남도 내 1위의 역동성을 자랑한다. 시는 이러한 강점과 세계적인 생태 자산, 고부가가치 웹툰·애니메이션 클러스터를 전면에 내세워 '인재양성~일자리~정착'으로 이어지는 청년친화 선순환 생태계를 구현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시는 2030년까지 총 123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4대 분야(문화·기회·삶·참여)의 '순천시 청년정책 패키지'를 지원한다.

특히 미래 첨단 경제축인 문화콘텐츠, 우주·방산, 바이오, AI·반도체, 치유산업



지난해 12월 생태비즈니스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2025년 순천청년 네트워크 데이'에 참석한 다양한 분야의 순천 청년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순천시청

의 인재 육성을 전면 배치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촘촘하게 연결할 계획이다. 특히 6월부터 4대 분야 선도사업으로 문

화로 잠재력을 깨우고 역량을 다지는 '문화-이음', 교육과 역량을 바탕으로 생태·신산업 일자리까지 연결하는 '기회-이

음', 청년 마음치유와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삶-이음', 지역 사회의 핵심 주제로 삼아 '참여-이음'을 본격 실행한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순천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캠퍼스로 삼는 '순천 청년 라이프 디자인 대학'이 문을 연다. 미래를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생애 설계 도구를 제공하는 교육 플랫폼으로, 문화기획자를 양성하는 '기획연결학교', 로컬 식재료 기반의 '생태미식학교', 주제적 삶을 지원하는 '자립탐색학교'를 내실 있게 운영한다.

청년들의 창업 실현 공간인 아이디어 쇼룸 '연박신 순천'도 선보인다. 신도심(조례동)과 구도심(청춘창고)에 각각 거점을 마련해 빈 점포를 임대하고 청년들의 아이디어 상품을 판매·홍보할 수 있도록 단기 운영 기회를 제공한다.

독창적인 청년 문화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한 축제와 소통의 장을 펼친다. 오는 9월 청년의 날에 '청년친화도시 비전 선포식'과 '동부권 청년 공동포럼'을 개최하며, 10월에는 오천그린광장에서 정서 치유를 위한 '청년 힐링 가솔용품 in 정원'과 순천대·제일대·청암대가 함께 기획하고 참여하는 '유니온 캠퍼스 페스타'가 잇따라 개최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청년은 이제 정책의 대상이 아닌 시정을 함께 설계하는 강력한 파트너다"며 "체계적인 예산 집행과 촘촘한 패키지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순천 안에서 마음껏 일하고, 즐기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안성도 높은 '청년친화도시'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장흥군은 최근 장흥통합의학컨벤션센터에서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장흥군청

장흥 통합의학박람회 10월 15일 열린다

4일간 국제통합의학박람회장 일원서 체험행사

통합의학과 치유산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장흥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가 10월 15일 열린다.

장흥군은 최근 장흥통합의학컨벤션센터에서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노영환 장흥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해 전남도 식품의약과장, 추진위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추진위원 위촉과 임원 선출에 이어 박람회 기본계획, 대행사 모집 등 주요 안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단순히 '관람형 전시'를 넘어 '몸과 마음이 즐거운 체험형 박람회' 운영에 뜻을 모았다.

특히 전 연령층을 위한 맞춤형 힐링 프로그램, 통합의학 기반의 건강·치유·힐링 콘텐츠 확대, 장흥만의 특색을 살린 먹거리와 볼거리 구성을 통해 관람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보태겠다는 구상이다.

전남도와 장흥군이 공동 주최하는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는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장흥군 안양면 국제통합의학박람회장 일원에서 열린다.

노영환 장흥군수 권한대행은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가 군민과 방문객 모두가 함께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건강·힐링 박람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311@gwangnam.co.kr

광양, 철강산업 고용위기 극복 총력 대응 나서

화물운수종사자 등 건강복지비 1인당 최대 50만원

광양시는 지역 주력산업인 철강산업 침체에 따른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용직 근로자 지원에 이어 일용직 근로자와 화물운수종사자를 위한 '근로자 안심패키지(건강복지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철강산업 관련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 고용 안정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항목은 사회보험료, 건강검진비,

의료비, 출퇴근 유류비, 숙박비 등이며, 1인당 최대 50만원을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5월 20일 이전부터 전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광양시 소재 철강 또는 연관 기업에 근로 이력이나 거래 관계가 있는 일용직 근로자와 화물운수종사자다.

광양 모집인원은 일용직 5850명, 화물운수종사자 900명이다.

온라인 신청은 6월 19일까지 전남일자리정보망 누리집 (<https://job.jeonnam.go.kr>)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6월 4일부터 광양만권소재부품자식산업센터(광양읍 익신산단3길 40) 1층에서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현장 접수 첫 주인 6월 4일부터 6월 10일까지는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운영한다.

광양시 관계자는 "철강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현장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 내 고용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이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근로자 안심패키지(건강복지비) 지원사업 외에도 훈련촉진장려금 지급, 신규 취업자 대상 '취업 성공수당' 지급, 신규 '취업·채용 장려금' 지원, 기업 고령노동비용 지원 등 고용위기 극복과 지역 고용 안정 강화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kjin@gwangnam.co.kr

보성, 상반기 신속집행 2715억 목표

부서별 투자 확대 방안 논의...지역경제 회복 주력

보성군은 부서별 집행 현황 점검과 재정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31일 보성군에 따르면 최근 이상철 보성군수 권한대행 주재로 '2026년 2분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및 소비투자 집행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정부의 재정 신속집행 기조에 발맞춰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지원하고, 소비·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 회복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는 전 부서장이 참석해 신속집행 추진 현황, 소비투자 집행 실적,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상황, 집행 부진 사유 및 개선 대책 등을 공유했으며,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군은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액은 2715억원으로, 현재까지 1678억원을 집행해 집행률 61%를 기록하고 있다.

전 부서는 대규모 투자사업과 소비·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행정절차 간소화와 사업별 예외 사항 해소 등을 통해 상반기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상철 권한대행은 "지방재정의 적기 집행은 국민 생활 안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중요한 과제다"며 "각 부서에서 집행 과정의 장애 요인을 적극 해소하고, 재정의 신속한 집행이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보성=임태형 기자 limth66@

'여수시민의 상·자랑스러운 여수인' 접수

지역개발·문예홍보 등 7개 부문...내달 21일까지 추천

여수시는 7월 21일까지 2026년도 '여수시민의 상'과 '자랑스러운 여수인'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여수시민의 상'은 지역사회와 향토문화 발전, 시민 복지증진 등에 기여하거나 뛰어난 재능과 활동으로 시민의 명예를 국내외에 널리 알린 시민에게 주어진다. 추천 부문은 지역개발, 산업경제, 교육과학, 문예홍보, 사회복지, 체육진흥, 향토방위 등 7개 부문이다.

후보자는 시장, 시의회 의장, 유관기관 단장, 대학 총장, 각급 학교장이 추천할 수 있으며, 주민 50인 이상의 연서를 받은 경우 읍·면·동장도 추천 가능하다.

'자랑스러운 여수인'은 국가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여수의 명예를 빛낸 출향 인

사에 대해 수여하는 상이다. 관계·법조계·재계·학계·군인·체육·문화예술 등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해 사회적으로 명성이 높은 출향 인사로 대상으로 하며, 시민 누구나 추천할 수 있다.

추천을 희망하는 경우 여수시 누리집에서 추천서 등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관련 서류를 갖춰 여수시청 총무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여수를 대표하는 뜻깊은 상인 만큼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존경할 수 있는 분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추천을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총무과(061-659-3107)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곡성, 윤곡특화 농공단지 분양 홍보

식품 특화단지 장점·투자 지원제도 안내

곡성군은 최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광주식품대전'에서 현재 조성 중인 곡성 윤곡특화 농공단지 분양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군은 식품산업 분야 기업 관계자들이 다수 방문하는 이번 행사에서 식품 특화단지로 조성 중인 농공단지의 입지 여건과 지원제도를 알렸다.

이번 홍보에서는 농공단지가 호남 고속도로 옥곡C에서 차량으로 약 2분 거리에 위치해 영·호남과 서해안권을 연결하는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점과 전남 지역의 풍부한 농산물을 활용한 식품 원재료 확보가 가능하

다는 점을 설명했다. 아울러 투자 금액 20억원 이상,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기업 가운데 전남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입지·시설 보조금과 고용·교육훈련보조금 등 다양한 투자 지원제도가 가능하다는 내용도 상황을 통해 홍보했다.

농공단지는 곡성군 오산면 윤곡리 89-3번지 일원에 산업시설용지 10만 6539㎡ 규모로 조성 중이며,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총 25필지 가운데 식품제조업 20필지를 중심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약 75% 수준이다. 곡성=김유빈 기자



고흥, 녹조 예방 우수처리시설 집중점검

고흥군은 녹조 발생 예방과 안전한 친수환경 조성을 위해 6월 초까지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하천 및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사전에 차단하고, 녹조 발생 원인이 되는 영양염류(질소, 인)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처리용량 50㎥/일 이상의 우수처리시설 10개소로, 주요 점검 내용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신고 여부, 오수처리시설 정상 가동 여부, 방류수 수질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방류수에 대해서는 현장 시료 채취 및 오염도 검사를 실시해 수질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계도를 실시하고,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 위반 사항이 확인된 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녹조 예방과 수질 보전을 위해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적정 관리가 중요하다"며 "군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친수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